

주말부터 본격 단풍철 무등산 다음달 6일 절정

지리산은 12일 시작 24일 절정
기온 높아 평년보다 1~3일 늦어
10~11월 탐방객·산악사고 많아
단풍 나들이 안전사고 주의보

올 가을 무등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오는 20일경부터 시작돼 다음달 6일
을 전후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풍을 구경하기 위한 등산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등산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
도 요구된다.

17일 민간 기상정보회사인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1~3일 정
도 늦은 것으로 보인다. 올 가을 무등산의
첫 단풍시기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오는
20일경 시작돼 다음달 6일 전후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지리산의 첫 단풍
은 지난 12일 시작됐으며, 오는 24일 절정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풍은 산
전체로 볼 때 정상부터 아래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며,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라고 불린다.
케이웨더는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1~

3일 늦고, 절정시기도 평년보다 1~2일 늦
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풍은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
어지면 잎 속 엽록소 분해 현상으로 노랑
거나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며, 9월 상순 이
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된다. 일
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케이웨더 측은 올해 단풍이 평년보다 늦
은 이유에 대해 "8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
다 적은 데다, 9월 기온이 평년보다 살짝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중 단풍이 절정에 이르기 시작하는 10
월과 11월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가장 많은 만큼 안전사고도 가장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낙산 등 등산 사고
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광주·전남에
서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683건(광주
441·전남 1242)이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 전남의 등산사고 원
인을 보면 실족·추락이 473건(28%)으로
최다였다. 이어 음주·셋길 이용 등 안전수
칙 불이행 330건(19%), 조난 258건
(15%), 개인 질환 243건(14%) 순이었
다. 지난해 국립공원 17개 산의 탐방객은

2998만 명으로 월별로는 10월 방문객이
449만 명으로 가장 많고 11월이 337만 명
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탐방객의 4분의 1
이 단풍철인 10~11월 두 달 동안 몰린 셈
이다. 등산 사고도 10월에 4845건
(1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등
산할 때는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야 한다.
등산로와 풀숲에 맺힌 이슬이 마르지 않아
평소보다 길이 더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좋은 미끄럼 방지 등산화는 신는
게 좋다. 또 길을 때는 미끄러지기 쉬운 돌
바위는 피하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밟고 나
뭇가지 등에 몸을 의지 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시기이므로 조금만 마음에 하산을 서두르
다 실족하거나 조난되는 등의 사고가 생기
지 않도록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 산행을
마무리해야 한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올해는 이례
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빨리 내려진 만큼 보
운에도 신경 써야 한다"며 "본인의 체력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고 개인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며, 음주산행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프로야구 응원 막대풍선 7개 제품서 기준치 최대 302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쇼핑몰·노상판매 제품 34개 조사
어린이용 글로브 등도 기준 초과

KIA 타이거즈 등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
몰과 야구장 인근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
대풍선과 어린이용 야구글로브에서 기준
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야구 관련 어린이 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
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
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
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
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10개)과 어
린이용 글로브(9개), 소프트볼(10개), 야
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
풍선(5개) 등 34개였다.

조사 결과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막
대풍선 10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
(0.1% 이하)을 최대 302배 넘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
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안전연구소에
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구단별로 보면 한화이글스 공식 쇼핑몰
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기준치의 302배
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
고 KIA 타이거즈(184배), SK 와이번스
(167배) 등의 순으로 많이 검출됐다. 야구
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는 막대풍선은 조
사대상 5개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
제가 검출됐다.

공식 쇼핑몰 판매제품 6개와 노상판매
제품 5개 모두에서는 카드뮴도 안전기준
을 10배 넘게 검출됐다.

어린이용 글로브의 경우 키움 히어로즈
와 삼성 라이온즈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
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8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 kt
wiz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로브에
서는 납이 안전기준을 최대 3배 초과해 검
출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원지 등 식품업소 점검 위생불량 등 업소 9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나들이 철을
앞두고 유원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있
는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302곳을 점
검, 9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
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
도로 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
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
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잔디미시시
(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
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
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
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적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
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0	달 뜨기	20:51
해질	17:55	달 지기	10:30

우산 챙기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한때비	12/21	보성	흐리고한때비	12/20
목포	흐림	14/20	순천	흐리고한때비	14/22
여수	흐리고비	16/19	영광	흐림	10/20
나주	흐리고한때비	10/20	진도	흐림	13/20
완도	흐리고한때비	15/21	전주	흐리고한때비	11/21
구례	흐리고한때비	10/21	군산	구름맑음	12/22
강진	흐리고한때비	13/21	남원	흐리고한때비	11/20
해남	흐림	12/21	흑산도	흐림	15/20
장성	흐리고한때비	10/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남부 먼바다	북~북동	0.5~1.5
앞바다	북~북동	0.5~1.0
남해 먼바다(동)	북~북동	1.0~2.0
서부 먼바다(서)	북~북동	1.0~1.5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	☁	☁	☁	☁	☁	☁
14/23	12/22	11/22	11/22	11/21	11/21	11/21



광주국제차전시화...다례 배우는 어린이들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광주국제차(茶)문화전 시화'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다례를 배우고 있다./최현배 기자choi@

순천지역 중학교 100% 희망 순서대로 배정한다

권역·구역 배정 방식 폐지

7개 학교까지 지원 컴퓨터 추천

순천의 중학교 배정 절차가 권역이나
구역을 폐지하고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순천교육지원청이 17일 공고한
'2020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계획'에
따르면 기존 권역 및 구역 배정이 폐지되

고,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으로 정원의
100%를 배정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모든 지원자
가 순천 15개 중학교 가운데 희망 순서에
따라 1지망부터 7지망까지 7개 학교를 선
택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청은 이를 토대
로 학교 정원의 100%까지 컴퓨터 추천으
로 배정한다. 순천에서는 그동안 근거리
배정 방식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
지 못한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됐다.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최적의
교육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결정한 만큼 교육 가족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들을
찾아가 배정 계획 설명회를 하고 다음 달
4~19일 지원서를 받아 내년 1월 9일 추
첨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민대통합을 위한

2019 영호남 문화대축전

2019. 10.25 (목) - 27 (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주최·주관 **광주일보** 매일신문사
후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